

#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차이 분석

## A Difference Analysis of Domestic Family Travel Participation by Demographics of Family

최승묵, 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eung-Mook Choi(mook@kcti.re.kr), Jung-Suk Park(jspark@kcti.re.kr)

### 요약

가족은 관광시장의 기초적 소비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족의 특성은 가족관광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족의 특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가족의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연간 국내 가족관광 일수와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소득과 동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국내 가족관광 횟수·일수·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 가족관광 | 가족관광 참여 | 가족 인구통계적 특성 |

### Abstract

Families form the consumer base of travel market and the family travel patterns are highly dependent on family characteristics. It is therefore crucial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family travel participation. But tourist research has rarely taken notice of family travel participation in Korea. Taking an empirical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family tourism participation by Korean household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nd deriv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domestic tourism using 2011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data.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family travel days and expenditure by the size of the municipality where the household is located.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family travels, the total number of family travel days and expenditure by family income and the overall number of family members.

■ keyword : | Family Travel | Family Travel Participation | Demographics of Family |

## 1. 서론

사람은 일생동안 다양한 타인 및 집단과 접촉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가족인데, 가족의 형태나 상황 등은 관광행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2]. 따라서 가족의 형태나 상황이 가족관광 참여 등 관광수

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4]. 이러한 맥락에서 국외에서는 가족의 특성 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의 특성(소득, 가구원 수, 미성년자 수, 실업자 수, 거주지역 규모, 주택 소유 형태, 가족 라이프 사이클 등) 및 가구주의 특성(성별, 연령, 국적, 교육수준, 고용 상태 등)이 가족관광 참여(참여율, 횟수, 일수, 이동 거리, 지출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가족 및 가구주 특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족 특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1년) 동안 가족관광 참여 및 가족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응답률은 낮아[5]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선행연구들도 주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가족관광 조사 또는 가족 지출 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가족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가족관광 참여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획득된 연간 가족관광 참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의 거주 지역 규모, 가구 소득, 가구원 수 등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 및 참여 횟수·일수·지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과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그동안 수행된 국내 가족관광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기초적이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의 개념 및 중요성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이다[6]. 즉 가족은 사회화의 1차적 집단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신념, 태도, 가치, 행동을 가족집단으로부터 습득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7]. 이러한 가족은 사회집단 중 가장 작은 단위이자 특별한 집단으로 다른 사회집단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하며, 교류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다른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

오늘날 가족은 소비자 시장을 측정하는 적절한 분석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가족은 구성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며, 가족 구성원은 정보의 여과자로서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9].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준거집단이며 소비자 구매조직 중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10].

### 2. 가족관광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가족의 가치와 규범을 참조하므로 가족은 관광 행동에 대해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집단이다[11]. 이처럼 가족이 구성원들의 개성이나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므로 가족은 관광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단위라 할 수 있다[10]. 한편 가족단위의 관광활동은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12]. 또한 가족관광은 개인과 가족생

1)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2009년부터 가족관광에 대한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다.

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관광 활동 경험 만족도는 가족 간의 적응력과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8][13] 가족관계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4]. 이러한 설명들은 가족관광의 순기능을 역설한 것으로 가정 중시 내지 가족중심 생활 패턴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가족관광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15][16].

가족의 관광활동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재무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가족 소득, 고용 상태, 가족 규모, 교육 수준, 거주 지자체 규모, 가구주의 특성 등이 가족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관광 참여 및 지출액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의 현재 소득이다. 여러 연구에서 소득은 가족관광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17-25], 또한 소득은 가족관광 지출액에도 긍정적인 영향[19][20][22][26][27]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여행 거리가 길어지며[2], 소득이 증가하면 가족관광 횟수는 증가하나 총 일수는 증가하지 않는다[28]는 연구도 있다. 가구의 고용상태도 가족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가구의 실업은 가족관광 참여 및 지출액에 부정적인 영향[18-20][29]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구의 실업이 가족관광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1]도 있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규모도 가족관광 참여와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가구원 수와 미성년자 수는 가족관광 참여와 지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19][22-25][30]. 한편 가구원 중 수입이 있는 가구원 수는 가족관광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여가시간을 맞추어 관광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4].

또한 가족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 및 기호 변수로 가구의 연령 및 성별 역할, 교육 수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규모 등도 연구하였다. 이들 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광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가족관광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7-19][21][23-25][30]. 이와 함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규모도 가족관광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21][22-25][30].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관광 참여 결정요인은 가족관광 지출액, 가족관광 빈도 및 체류기간 결정요인과는 상이하다는 분석결과[19][20][27][31-33]가 도출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관광 참여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정적 요인(가족의 저축 여력, 고용 안정성, 주택 보유 상황 등), 비재정적 요인(연령, 환자 가구원 수 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4]도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가족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가족관광 연구는 주로 가족관광 의사결정 구조[10-12][34][35], 가족관광이 가족 만족 또는 관광 만족에 미치는 영향[1][14][15]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광의 주요 소비 집단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가족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가족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III. 연구 방법

#### 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로는 가족의 거주 지역 규모, 가구 소득, 동거 가구원 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국내 가족관광 참여 변수는 가족관광 경험률, 가족관광 횟수, 가족관광 일수, 가족관광 지출액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근거는 '2.2 분석 변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 변수들에 기초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간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간 국내 가

족관광 횡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간 국내 가족관광 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간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분석 자료 및 변수

### 2.1 분석 자료

우리나라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연간 가족관광 참여 현황 및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 중 가족관광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관광 예측 및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조사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이 목표모집단이다[36].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응답가족 표본은 200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등이 생산하는 통계자료는 가족관광 참여 및 지출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29]하기 때문에 주요 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응답자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한 직후 여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광이란 ‘연령에 상관없이 응답표본 가구 내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2인 이상이 동행한 관광’을 의미한다.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설

문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이들은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이 만15세 이상 가구원과 함께 관광을 할 경우 가족관광의 범위에도 포함된다. 반면 1인 가구는 가족관광이 불가능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는 2,113가구로부터 확보된 가족관광 자료가 활용되었다.

### 2.2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와 국내 가족관광 참여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은 가족 특성과 가족관광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중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변수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표 1]. 먼저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는 가족의 거주 지역 규모, 가구 소득, 동거 가구원 수 등이다. 가족의 거주 지역 규모 변수는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시 단위 기초지자체), 읍/면(군 단위 기초지자체)으로 세분화하였다. 가구 소득은 동거 가구원들의 월평균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통계청 등에서 가구소득을 20%씩 5개 분위로 구분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5개 계층으로 세분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는 응답 표본 가구 내 동거하고 있는 총 가구원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내 가족관광 참여 변수 역시 관광 및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족관광 경험률, 횡수·일수·지출액 등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분석 변수 내용 및 근거

	구분	세부 내용	선행연구
가족 인구통계 변수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18][21][29]
	가구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4][5][29]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이상	[4][5][29]
가족 관광참여 변수	경험률	연간 1회 이상 가족관광 참여 가족 비율	[4][29]
	횡수	연간 가족관광 총 횡수	[5][28][37]
	일수	연간 가족관광 총 일수	[2][28][37]
	지출액	연간 가족관광 총 지출액	[28][29][37]

2) 최근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들이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Nanjing Residents Travel Survey[2],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4],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5],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of Israel[28], Spanish Household Budget Survey[29] 등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생산한 자료들이다.

3) 예를 들어 40세 어머니와 13세 아들로 구성된 가족일 경우 설문조사 대상(목표모집단)은 40세 어머니만 해당된다. 하지만 가구원 수는 2명이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관광했을 경우 가족관광에 해당된다.

#### IV. 분석 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본가족들의 거주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가족이 977가구(46.2%)로 가장 많으며 읍/면 거주 가족이 431가구(20.4%)로 가장 적었다. 가구소득 분위는 응답 표본가족들의 월평균 총소득을 20% 단위로 분할한 것이다. 다만 복수의 가구들이 가구소득 20% 구분값과 동일한 경우 같은 소득분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가구소득 구성비가 정확하게 20%씩 구분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동거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709가구, 33.6%)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인 가구(678가구, 32.1%), 3인 가구(485가구, 23.0%), 5인 이상 가구(241가구,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가족 수(가구)	구성비(%)
전체	2,113	100.0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977
	중소도시	705
	읍/면	431
가구소득	1분위	382
	2분위	375
	3분위	423
	4분위	494
	5분위	439
가구원 수	2인	709
	3인	485
	4인	678
	5인 이상	241

##### 2. 인구통계적 특성별 가족관광 참여 차이 분석

###### 2.1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 차이 분석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연간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역 규모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 및 가구원 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01). 가구소득 1분위의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은 43.2%, 2분위는 48.3%, 3분위는 63.4%, 4분위는 65.0%, 5분위는 65.1%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01$ ). 가구원 수 2인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은 49.5%, 3인 가족은 56.3%, 4인 가족은 64.6%, 5인 이상 가족은 66.0%로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에 대한  $\chi^2$  분석 결과

구분	국내 가족관광 경험		$\chi^2$	p	
	있음	없음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56.1	43.9	5.291	.071
	중소도시	61.3	38.7		
	읍/면	55.9	44.1		
가구 소득	1분위	43.2	56.8	72.891	.000
	2분위	48.3	51.7		
	3분위	63.4	36.6		
	4분위	65.0	35.0		
	5분위	65.1	34.9		
가구원 수	2인	49.5	50.5	39.907	.000
	3인	56.3	43.7		
	4인	64.6	35.4		
	5인 이상	66.0	34.2		

###### 2.2 국내 가족관광 횟수 차이 분석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연간 국내 가족관광 횟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p=.000 < .01$ )과 가구원 수( $p=.035 < .05$ )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거주지역 규모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하였다.

가구소득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5분위(M=2.76회)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횟수는 1분위(M=1.98회)·2분위(M=2.13회)·3분위(M=2.31회)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분위(M=2.43회)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횟수는 1분위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4인(M=2.59회)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횟수는 5인 이상(M=2.23회)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내 가족관광 횟수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Duncan	F	p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37	1.835	A	1.554	.212
	중소도시	2.48	2.024	A		
	읍/면	2.21	1.763	A		
가구 소득	1분위	1.98	1.658	A	5.756	.000
	2분위	2.13	1.641	AB		
	3분위	2.31	1.737	AB		
	4분위	2.43	1.972	BC		
	5분위	2.76	2.134	C		
가구원 수	2인	2.25	1.961	AB	2.877	.035
	3인	2.29	1.937	AB		
	4인	2.59	1.892	B		
	5인 이상	2.23	1.599	A		

주: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같은 문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alpha=.05$ )

2.3 국내 가족관광 일수 차이 분석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연간 국내 가족관광 일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 규모( $p=.000 < .01$ ), 가구소득( $p=.000 < .01$ ), 가구원 수( $p=.017 < .05$ )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하였다.

표 5. 국내 가족관광 일수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Duncan	F	p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4.47	4.744	A	8.149	.000
	중소도시	4.55	3.331	A		
	읍/면	3.36	2.843	B		
가구 소득	1분위	3.07	2.533	A	7.771	.000
	2분위	3.95	6.504	B		
	3분위	4.08	3.234	B		
	4분위	4.53	3.366	BC		
	5분위	5.09	3.612	C		
가구원 수	2인	4.03	5.368	A	3.421	.017
	3인	3.90	2.939	A		
	4인	4.75	3.429	B		
	5인 이상	4.17	3.133	AB		

주: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같은 문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alpha=.05$ )

먼저 거주지역 규모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대도시( $M=4.47$ 일)와 중소도시( $M=4.55$ 일) 거주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일수는 읍/면( $M=3.36$ 일) 거주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5분위( $M=5.09$ 일)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일수는 1분위( $M=3.07$ 일)·2분위( $M=3.95$ 일)·3분위( $M=4.08$ 일)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분위·3분위·4분위( $M=4.53$ 일)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일수도 1분위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4인( $M=4.75$ 일)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일수는 2인( $M=4.03$ 일) 및 3인( $M=3.90$ 일)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 차이 분석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연간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 규모( $p=.000 < .01$ ), 가구소득( $p=.000 < .01$ ), 가구원 수( $p=.000 < .01$ )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하였다.

먼저 거주지역 규모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중소도시( $M=889,531$ 원) 거주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은 대도시( $M=715,010$ 원) 및 읍/면( $M=613,503$ 원) 거주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5분위( $M=1,018,635$ 원)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분위( $M=714,935$ 원) 및 4분위( $M=808,055$ 원) 가족이 많고, 1분위( $M=488,379$ 원) 및 2분위( $M=558,597$ 원) 가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 항목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4인( $M=882,139$ 원) 및 5인 이상( $M=812,309$ 원)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은 2인( $M=657,598$ 원) 및 3인( $M=650,753$ 원) 가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내 가족관광 지출액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Duncan	F	p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715,010	726,671	A	10.771	.000
	중소도시	889,531	873,593	B		
	읍/면	613,503	780,553	A		
가구 소득	1분위	488,379	771,047	A	16.453	.000
	2분위	558,597	605,079	A		
	3분위	714,935	683,738	B		
	4분위	808,055	788,416	B		
	5분위	1,018,635	937,425	C		
가구원 수	2인	657,598	719,028	A	7.382	.000
	3인	650,753	710,118	A		
	4인	882,139	870,749	B		
	5인 이상	812,309	850,024	B		

주: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같은 문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alpha=.05$ )

###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연간 가족관광 경험률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그리고 가족의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국내 가족관광 일수 및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가구소득 및 동거 가구원 수에 따라 국내 가족관광 횟수·일수·지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분석 종합

구분	거주 지역 규모	가구소득 분위	가구원 수
경험률	-	• 5 > 4 > 3 > 2 > 1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횟수	-	• 5 > 1, 2, 3 > 4 > 1	• 4인 > 5인 이상
일수	• 대도시, 중소도시 > 읍/면	• 5 > 1, 2, 3 > 2, 3, 4 > 1	• 4인 > 2인, 3인
지출액	• 중소도시 > 대도시, 읍/면	• 5 > 3, 4 > 1, 2	• 4인, 5인 이상 > 2인, 3인

현재 가족관광 참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거주 지역 규모의 경우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관광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규모별 가족관광 경험률 및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관광 일수 및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는 거주 지역 규모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구 수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 규모를 세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거주 지역 규모를 세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국외 선행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대한 결과이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관광 경험률 및 가족관광 횟수·일수·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관광 경험률이 높고, 가족관광 일수 및 지출액도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국외 선

행연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관광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1분위에 대해 복지관광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복지관광 대상을 어느 분위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는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 및 횟수·일수·지출액이 다른 가구소득 계층보다 낮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 1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가족관광에 참여가 어려운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관광 정책은 가구소득 1분위를 우선적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가구소득 분위와 통계청의 가구소득 분위 구분 기준<sup>4)</sup>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가족화 시대에 대비한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국내 가족관광 경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 2인 및 3인 가족의 국내 가족관광 일수 및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국내 가족관광 참여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동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국내 가족관광 참여 정도가 적은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의하면 향후 1인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3인 가구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구 추계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가족관광 일수 및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2인 가구의 비중 증가로 가족관광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족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인 및 3인 가구의 가족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4) 통계청의 가구소득 5분위는 농림어가를 제외한 일반가구 대상 조사 결과이나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각 통계의 20% 계층 구분 소득 및 각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상이할 수 있다.

모색할 필요가 있다. 2인 또는 3인의 소규모 가족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관광 전체 차원에서는 가족관광 이외 형태의 관광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표 8. 장래 가구 추계

구분	(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10년	23.9	24.2	21.3	22.5	8.1
2015년	27.1	26.7	21.3	18.8	6.1
2020년	29.6	29.0	21.1	15.7	4.7
2025년	31.3	31.2	20.6	13.2	3.7
2030년	32.7	33.0	20.2	11.3	2.9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장래 가구 추계

## V. 결론

가족은 사람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가족의 형태나 상황 등은 관광행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나 상황이 가족관광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국외에서는 가족의 특성 등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족관광 참여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가족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가족의 특성과 가족관광 참여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국내 가족관광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가족관광 경험률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국내 가족관광 일수와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가구소득 및 동거 가구원 수에 따라 국내 가족관광의 횟수·일수·지출액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가구소득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광 실시, 향후 가구원 수가 적은 가족 증가에 대응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년간 실시된 가족관광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족특성과 가족관광 참여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 후 가족이 구성된 이후 자녀의 출생과 성장, 분가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생활주기가 변동된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별 가족관광 특성을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가족관광 참여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인구통계적 특성만을 고려하였으나 그 외에 재무적 특성, 가구주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특성들이 가족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 가족관광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국외 가족관광은 국내 가족관광의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관광의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외 가족관광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윤혜진, 김철원, “축제 만족도가 가족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3권, 제2호, pp.119-138, 2009.
- [2] J. Feng, M. Dijst, B. Wissink, and J. Prillwitz, “The Impacts of Household Structure on the Travel Behaviour of Seniors and Young Parents in Chin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30, pp.117-126, 2013.
- [3] T. Tangeland and Ø. Aas, “Household Composition and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 Attributes of Nature Based Tourism Activity Products: A Norwegian Case Study of Outdoor Recreationists," *Tourism Management*, Vol.32, No.4, pp.822-832, 2011.
- [4] J. Alegre, S. Mateo, and L. Pou, "An Analysis of Households' Appraisal of Their Budget Constraints for Potential Participation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31, No.1, pp.45-56, 2010.
- [5] A. Mohammadian, M. Javanmardi, and Y. Zhang, "Synthetic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Simul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Vol.18, No.6, pp.869-878, 2010.
- [6] 유영주,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교문사, 1993.
- [7] 송길연 역, *사회 성격 발달(제5판)*, 시그마프레스, 2008.
- [8] X. Y. Lehto, Y. Lin, Y. Chen, and S. Choi, "Family Vacation Activities and Family Cohesion,"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Vol.29, No.8, pp.835-850, 2012.
- [9] 대흥기획 마케팅컨설팅그룹 옮김, *소비의 심리학*, 세종서적, 2003.
- [10] 홍성화, 송재호, 양성국, "가족관광객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속성인식과 관광지 선호유형: 제주지역 가족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2권, 제1호, pp.67-82, 2008.
- [11] 심상화, 김월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관광지 선택 행동의 실증분석", *산학경영연구*, 제11권, pp.149-171, 1998.
- [12] 이하정, *한·중·일 아웃바운드 가족관광 의사결정의 국제간 비교: 여성경제활동동과 가족성향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 [13] W. J. Klausner, "An Experiment in Leisure," *Science Journal*, Vol.4, pp.81-85, 1978.
- [14] 장호중, 김정묵, "가족관광 참여자의 관여도와 가족건강성 및 가족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3권, 제3호, pp.7-17, 2009.
- [15] 윤정현, "가족관광객의 관광동기, 관광지 선택속성 및 관광만족의 영향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5호, pp.283-301, 2010.
- [16] 허선주, 최종훈, "가족 여가 활용을 위한 주말농장 연계형 스마트 TV 콘텐츠 제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4호, pp.86-94, 2012.
- [17] J. Alegre, S. Mateo, and L. L. Pou, "Participation in Tourism Consumption and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An Analysis of Their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Determinants," *Tourism Economics*, Vol.15, No.3, pp.531-546, 2009.
- [18] J. Alegre and L. L. Pou,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the Probability of Tourism Consumption," *Tourism Economics*, Vol.10, No.2, pp.125-144, 2004.
- [19] L. A. Cai, "Analyzing Household Food Expenditure Patterns on Trips and Vacations: A Tobit Mode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22, No.4, pp.338-358, 1998.
- [20] L. A. Cai, "Relationship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Lodging Expenditure on Leisure Trips," *Journal of Hospitality and Leisure Marketing*, Vol.6, No.2, pp.5-18, 1999.
- [21] J. Eugenio-Martín and J. A. Campos-Soria, "Income and the Substitution Patter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Applied Economics*, Vol.43, No.20, pp.2519-2531, 2011.
- [22] B. Melenberg and A. Van Soest, "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Modelling of Vacation Expenditure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11, No.1, pp.59-76, 1996.
- [23] J. L. Nicolau and F. Mas, "Stochastic Modeling: A Three-stage Tourist Choice Proces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2, No.1, pp.49-69, 2005.
- [24] J. L. Nicolau and F. Mas, "Heckit Modeling of Tourist Expenditure: Evidence from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16, No.3, pp.271-293, 2005.

[25] J. L. Nicolau and F. Mas, "Simultaneous Analysis of Whether and How Long to Go on Holidays,"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29, No.8, pp.1077-1092, 2009.

[26] L. A. Cai, G. S. Hong, and A. M. Morrison,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for Tourism Product and Servic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Vol.4, No.4, pp.15-40, 1996.

[27] M. Coenen and L. Van Eekeren, "A Study of the Demand for Domestic Tourism by Swedish Households Using a Two-staged Budgeting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Vol.3, No.2, pp.114-133, 2003.

[28] A. Fleischer, G. Peleg, and J. Rivlin,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Vacation Expenditures on the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ies," Tourism Management, Vol.32, No.4, pp.815-821, 2011.

[29] J. Alegre, S. Mateo, and L. Pou, "Tourism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by Spanish Households: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and Unemployment," Tourism Management, Vol.39, pp.37-49, 2013.

[30] T. Mergoupis and M. Steuer, "Holiday Taking and Income," Applied Economics, Vol.35, No.3, pp.269-284, 2003.

[31] A. Fleischer and E. Seiler, "Determinants of Vacation Travel Among Israeli Seniors: Theory and Evidence," Applied Economics, Vol.34, No.4, pp.421-430, 2002.

[32] J. Hellström, "An Endogenously Stratified Bivariate Count Data Model for Household Tourism Demand," Umea Economic Studies 583, pp.1-35, 2002.

[33] J. Hellström, "A Bivariate Count Data Model for Household Tourism Demand,"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21, No.2, pp.213-226, 2006.

[34] 채예병,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유발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436-2443, 2010.

[35] 채예병, "연령에 따른 가족관광시 갈등관리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296-3303, 2010.

[36]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2.

[37] 최승묵, "취업자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관한 실증분석: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 횟수, 지출액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459-469, 2012.

### 저자 소개

#### 최 승 묵(Seung-Mook Choi)

중신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3년 6월 ~ 2010년 2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관광자원 개발, 관광경제, 도시관광

#### 박 정 숙(Jung-Suk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2005년 2월 :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

- 2010년 3월 ~ 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관심분야> : 여가, 관광경제